



교육계의 뜨거운 이슈, 국제학교백서

최근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관심은 온통 '국제학교'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학교에 대한 법률을 완화함에 따라 전국 각지에 잇따라 국제학교들이 개교하고 있으며 당분간은 그런 뉴스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문에 귀 기울이기 전 먼저 알아야 할 국제학교에 대한 모든 것.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 무엇이 다른가

많은 학부모들이 혼동하고 있는 것이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의 개념이다. 외국에서는 'International School(국제학교)'이 특정 국가에서 다른 나라의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학교를 통칭하는 말이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인학교, 외국 교육기관, 국제학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선 외국인학교는 한국 주재 외국인들의 자녀를 수용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로, 내국인의 입학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2009년 2월부터 조기유학 등의 사회문제로 인해 내국인 입학 자격이 외국 체류 경험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그 설립 목적은 철저히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국의 민족 교육을 지원하는 데 있으며, 교육목표 역시 국내 체류 외국인 자녀를 위한 교육에 집중되어 있다. 국제학교로 혼동되곤 하는 반포에 위치한 덜위치 칼리지(Dulwich College)는, 서울시가 외국인 교육 환경 개선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학교로, 엄밀히 말하자면 내국인의 입학이 정원의 25%로 제한된 외국인학교다.

반면 국제학교는 '외국 교육기관'과 국민 외국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립국제학교'로 나뉜다. 외국 교육기관은 외국인 정주 여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지만, 초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내국인 학생을 해외 거주 요건과 무관하게 정원의 3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한 학교로, 인천 채드윅 국제학교나 대구의 국제학교 리 아카데미 등이 이에 포함된다. 경제자유구역(송도, 청라, 영종, 대구 등)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 내의 외국의 비영리 학교법인만이 외국 교육기관으로 분류된다. 공립국제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국가가 지원하는 학교로 제주도의 영어교육도시 내에 2011년 개교할 예정인 한국국제학교(KIS)가 이에 포함된다. 같은 법규에 의해 제주에 개교할 예정인 노스런던칼리지잇스쿨 제주(NLCS Jeju) 역시 해외 거주 경험과 무관하게 내국인 입학이 가능하며, 영국과 한국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국어·사회(초등) / 국어·역사(중등) / 국어·

한국사(고등)필수 이수 시)되는 특혜를 받는 학교로, 공립국제학교는 아니지만 국제학교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제주에 조성되는 영어교육도시 내에 설립되는 국제학교의 특징은 국내의 법인이 모두 설립할 수 있으며, 내국인 학생의 해외 체류 기간이나 입학 비용의 제한이 없다는 점. 따라서 해외 거주 경험이 없는 내국인들 중 해외 유학을 고려했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제학교의 잇따른 개교는 기러기 아빠나 조기유학 등의 폐해, 그리고 외국자본 유치에 대해 국가가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외국의 교육과정을 도입해 유학의 대안을 제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교의 교육철학과 역사를 확인하라

요즘 생겨나는 국제학교는 대부분 외국의 학교법인을 유치해 개교하고 있으므로, 학교의 모체가 되는 본교의 교육철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교사 선발 방식이나 국가별 학풍, 교육목표도 고스란히 학교 운영에 반영되므로, 자녀가 갖고 있는 비전이나 성향에 따라서 신중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채드윅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75년 전 시작된 미서부의 명문 사학 중 하나로, 마가렛 리 채드윅 여사가 설립한 비영리 독립 사립 교육기관이다. 채드윅 스쿨은 미국 명문 사립학교의 전형이라 불려도 좋을 만큼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학문적 우수성과 인성의 발달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부모들이 자녀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피드백하며 학교의 중요한 구성원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미국 채드윅의 지난해 졸업생 83%가 미국 상위 10%의 명문 대학에 진학했으며, 교직원의 54%가 석사학위 보유자라는 사실도 '최고의 명문 사학'으로서 채드윅의 면모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될 국제학교, 노스런던칼리지잇스쿨 제주(NLCS Jeju)는 영국 런던에 위치한 노스런던칼리지잇스쿨(NLCS UK) 최초의 해외 캠퍼스로, 빅토리아 시대의 교육자인 프랜시스 메리 버스가 1850년에 개교했다. 160여 년의 역사를 지닌 NLCS는 2009년 영국 내 사립학교 랭킹 3위, 2007년 A-Level(영국 수능) 랭킹 1위, 4년 연속 <파이낸셜 타임스> 선정 영국 내 IB 스쿨 랭킹 1위를 차지하는 등 영국 내 가장 성공적인 사립학교로 꼽히며, 졸업생의 40%가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교, 미국 아이비리그로 진학하고 있다. 학문적 성취뿐 아니라, 오랜 전통을 지키며 학습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NLCS의 가장 특징적인 교풍이다. 분당에 위치한 BIS 캐나다는 우리나라 최초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이하 BC 주)의 교육을 동일하게 제공하는 한국의 첫 '오프쇼어 스쿨(Offshore School)'이다. 오프쇼어 스쿨이란 캐나다 BC 주의 교육을 다른 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설립된 학교로, 과목 종류나 수, 교과서가 모두 BC 주와 같으며, 교육청 산하 비즈니스 컴퍼니가 특별 선발 과정을 통해 교사를 선임한다. 캐나다의 교육은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다양성 존중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BC 주의 커리큘럼은

캐나다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다. 지난해 반포에 문을 연 덜위치 칼리지는 1619년 설립된 영국 명문 사립학교로, 규범과 예의를 중시하는 학풍을 비롯해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 등에서 최고 수준의 국제학교로 크게 성공을 거두어 국제학교로서 충분히 검증 받았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반면, 국제학교 중에도 외국법인이 아닌 한국법인이 운영하는 학교가 있다는 점 역시 알아두어야 한다. 국내 최초 공립 국제학교로 오는 9월 개교를 목표로 하는 한국국제학교(KIS)는 (주)와이비엠시사가 위탁 운영할 예정이며, 역시 내년 9월 개교 예정인 인천청라달튼 외국인학교는 봉덕학원재단이 운영한다. 인천청라달튼 외국인학교의 경우 미국 뉴욕의 명문 사학 달튼의 '경험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지만, 분교의 개념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학교에 따라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분교'의 개념으로 운영되는 학교, 그리고 커리큘럼만 일부 도입하는 학교 등으로 나뉘어 지니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1 개교 전부터 국내 최초의 외국 교육기관으로 화제를 모았던 인천 송도 채드윅 국제학교
2 BIS 캐나다는 한국 최초로 캐나다 BC 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오프쇼어 스쿨이다.

Info 2010년 개교, 2011년 개교할 국제(외국인)학교들

인천 송도 채드윅 국제학교 2010년 9월 개교 / Kindergarten~Grade 1, Grade 2~5, Grade 6~8로 구성. 학년이 올라갈수록 순차적으로 G13까지 운영될 예정 / 외국인, 내국인 모두 입학 가능. 현재 외국인과 내국인의 비율은 1:5 정도 / 유치원~Grade 5는 24,000USD + 2,000,000KRW, Grade 6~8은 26,000USD + 2,000,000KRW / 문의 032-250-5000, www.chadwickinternational.org

덜위치 칼리지 2010년 9월 개교 / Nursery(만 3세), Pre-K(만 4세), Kindergarten(만 5세), Grade 1~5(만 6~10세)로 구성되며, 올해부터 중학교 과정이 운영될 예정 / 내국인은 정원의 25% 미만 모집(해외 체류 경험 만 3년 이상) / 연간 학비 2480만원 / 문의 02-501-9740, www.dulwich-seoul.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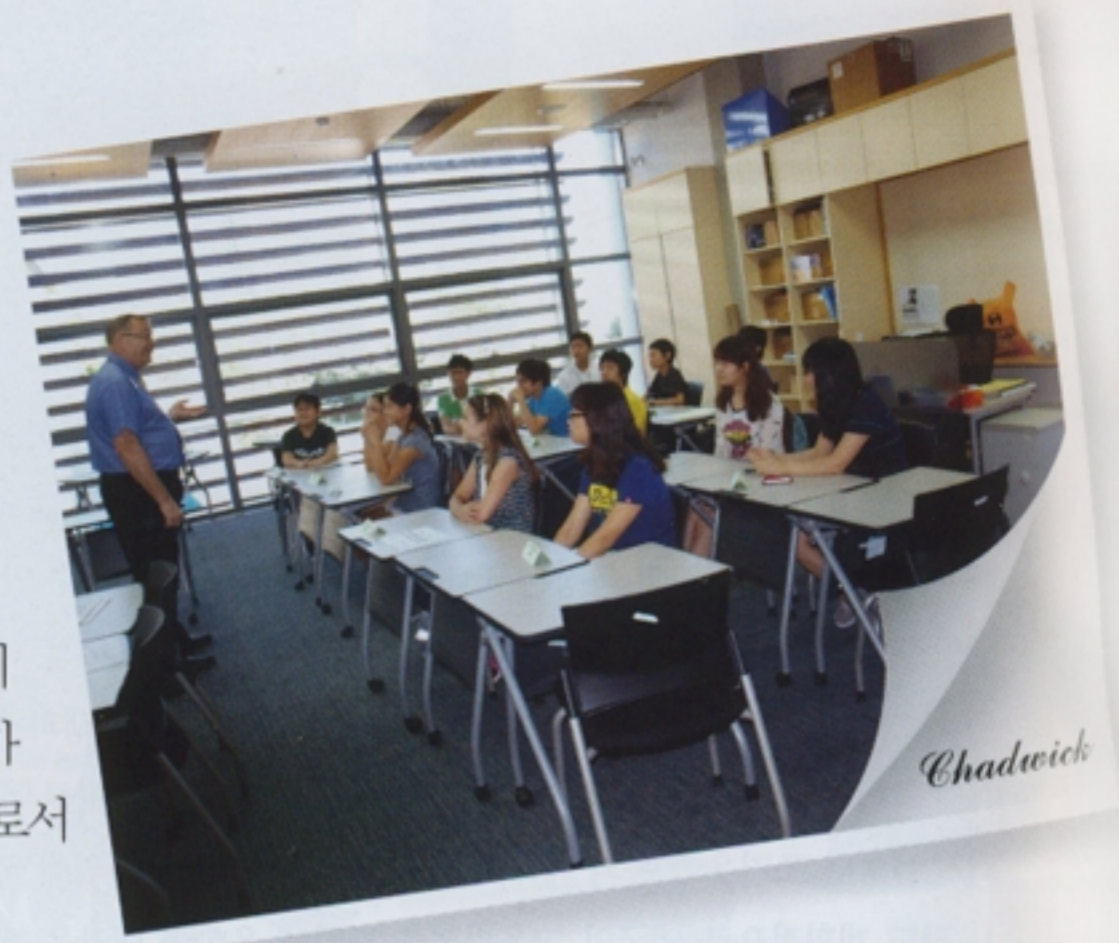
제주 한국국제학교(KIS) 2011년 9월 개교 예정 /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전형적인 미국의 학제로 구성되며, 2011년에는 4학년부터 8학년까지, 이후 매해 순차적으로 3, 2, 1학년, 그리고 2015년에는 유치원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 / 외국인, 내국인(해외 체류 경험 없어도 가능) 모두 입학 가능. 연간 학비는 초등 1700만원, 중등 1800만원 / 문의 031-789-0509, www.kis.ac

노스런던칼리지잇스쿨 제주 2011년 9월 개교 예정 / 유치원, Junior School(1~6학년), Middle School & Upper School(7~11학년), Sixth Form(12~13학년)으로 구성되며, 2011년도에는 유치원을 비롯해 1~9학년까지만 모집한다. 이후 2012년에 11학년이 되는 학생들부터 Sixth Form(B Diploma 과정을 준비하는 집중 수업)을 실시한다. / 외국인, 내국인(해외 체류 경험 없어도 가능) 모두 입학 가능 / 전원 기숙사 생활 / 연간 학비는 2300만~2900만원대 / 문의 02-3782-6887, www.nlcsjeju.kr

인천 송도의 국제학교 '채드윅' 학부모 체험기

교육의 주체가 되는 즐거움

인천 송도에 들어선 국내 최초 외국 교육기관 '채드윅(Chadwick)'이 교육계의 많은 관심 속에 작년 9월 7일 개교했다. 개교한 지 한 학기가 지난 지금, 학부모들은 학교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교육의 주체로서 채드윅의 100일을 함께한 한 워킹맘의 국제학교 체험기.



수년 전 내국인의 입학을 허용한다는 외국 교육기관에 관한 소식에 많은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부부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20여 년 이상 다국적기업에서 인사 담당자로 근무하며 환경과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으며,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장래 희망이라는 아이에게 창의적인 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열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오랜 기다림 후 마침내 송도에 채드윅 인터내셔널이 개교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촉박한 준비 기간과 개교 첫해라는 사실 때문에 조금 주저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히려 딸아이가 적극적으로 입학을 원했고, 시험과 합격을 거쳐 아이가 채드윅에 다닌 지 벌써 100일이 넘었다.

시험 당일, 아이가 시험을 보러 들어갔을 때 초조한 부모들을 안내한 것은 칠순이 넘는 교장선생님이셨다. 채드윅 동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선생님께서는 '휴렛팩커드(HP) 아태 지역 총괄사장'이라는 화려한 이력과 스탠퍼드와 하버드 대학교 MBA라는 수식어로 관심을 받기에 충분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분은 예비 학부모들과의 대화에서 "이런 성공의 척도가 채드윅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 즉 '학문적 성취와 타의 모범이 되는 자신감 있는 리더 육성'의 산물"이라며, 채드윅에 대한 신뢰를 당부했다. 당시 나는 '그건 미국 사정이고...'라며 마음속으로 회의를 품었지만, 그 칠순의 교장선생님 눈빛이 너무 진지하여 순간 혼란이 일었다. 우려했던 것과 달리 너무 즐겁게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가 "엄마, 나 이 학교에 꼭 다니고 싶어"라고 하기에, 화려한 시설 때문인가 싶었는데 "선생님이 내가 될 생각하는지 많이 물어보고 관심이 많은 것 같아"라는 성숙한 답변을 해서 은근히 기대를 갖게 되었다.

채드윅은 미국의 명문 사학으로 널리 알려졌으나 주변 분들이 혹시 분교 아니냐, 국내 외국인학교 교사진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느냐며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지인을 통해 학교의 설립 준비 과정부터 지켜볼 수 있었고, 명문다운 고집스러움으로 자존심을 유지하는 학교의 경영진을 보며 다시 한번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학교라는 곳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문제점에 대해 학부모들과 함께 고민하고 여러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절반의 성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눈치채기라도 한 듯 채드윅 캘리포니아 캠퍼스의 개교일이기도 했던 9월 7일 입학일에 캘리포니아 캠퍼스 부학생회장이 방한해 학교의 전통에 따라 학교의 마스코트인 돌고래 인형을 전교생에게 하나하나 나누어주었

다. 그러면서 학생회의 교류, 그리고 학부모회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할 때, 비로소 채드윅이 '하나의 학교, 두 개의 캠퍼스(one school, two campus)'라는 사실을 실감하고, 신뢰를 갖게 되었다.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내 아이만을 위한 참여가 아니라, 학교 전체가 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했고, 무엇보다 학교의 모든 문제나 사안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나 역시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진정한 용화를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탐구 중심의 '인터내셔널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커리큘럼에 따른 수업을 아이가 매일 즐겁고 흥미로워한다는 점, 다양한 방과 후 활동으로 공부뿐 아니라 24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아이와 나 모두 새로운 매력을 지닌 학교에 빠져들고 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6시 45분에 서초역에서 버스를 타는 딸아이는 이제는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나를 포함한 많은 워킹맘들조차 기꺼이 학교를 방문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선생님과 대화한다. "선생님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줘" "친구들과 다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아" "배우는 내용이 궁금해서 계속 알고 싶어" 등 아무래도 학습 강도가 약할 거라는 우려와는 달리 아이가 기꺼이 공부한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점 역시 신기할 따름이다.

직장으로 인해 글로벌한 경험의 기회를 가졌던 우리 가족으로서 주변의 긍정적인 환경에 어린 시절부터 노출된다면 굳이 외국이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터라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학교생활에 적응해나가는 딸아이를 보며 크게 만족하고 있다. 동시에 부모 역시 교육 전문가로서 학교의 역할을 신뢰하며, 가정에서 또 다른 측면의 교육 관심, 탐구 중심의 교육 장려를 이어가야 하는 역할에도 조금씩 익숙해져가는 중이다.

학생, 교사, 학부모의 멋진 팀워크가 엿보여지는 캠퍼스 곳곳의 모습, 많이 피곤했을 텐데 등교를 기다리며 설레 하던 딸아이, 교사진과 전교생이 노래로 축하했던 개교식의 감동 그리고 새로운 교육을 배워가는 매일매일의 즐거움이 이 새로운 교육의 시도에 대해 우리를 설레게 한다. 앞으로도 8년을 더 채드윅에서 배우고 자랄 딸아이가 지금처럼 계속 지적 자극을 즐기고 자신감을 갖고 행복을 누리면서 생활하기를 바라며, 대한민국 내에서의 진정한 글로벌 교육에 기대를 걸어본다. **서지현**

editor 박지혜 writing 김정현(채드윅 송도 학부모회 CIPA, 5학년 황지현 학생 어머니, HP 홍보이사)



1 대부분의 국제학교는 사교육이 필요 없을 만큼 충분한 과외활동을 제공한다. 2 캐나다 BC 주의 학력 인증을 받을 수 있는 BIS 캐나다. 3 초현대식 시설을 갖춘 채드워 국제학교 교내 전경.

Parents Interview 국제학교 보내보니...

문은미(채드워 인터내셔널 7학년 구다니엘 어머니)

1 학교의 철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웹사이트를 통해 학교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았다. 학교가 꼽는 다섯 가지 핵심 가치 '정직', '존경', '책임감', '공정', '배려'가 우리 가정의 교육관과 매우 잘 맞다고 생각했다.

2 물론 유학을 고려하기도 했으나, 남편의 일 때문에 1년 반 정도 미국에 거주해보니, 조기유학은 정서적인 면에서 부작용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아이가 혼자서 유학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가족과 함께 있고 싶어 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

3 사마천의 <사기열전>에 나오는 '재승덕(才勝德)하지 말고 덕승재(德勝才)하거라'라는 말을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편이다. '재주가 덕을 앞지르지 못하게 하고 덕이 재주를 앞서게 하라'는 뜻으로, 어렸을 때부터 인사 예절 등 인성교육에 매우 신경을 썼다.

4 무엇보다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어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다. 상하이의 국제학교에서도 공부는 잘하는 편이었지만 낯선 외국 땅이고 서양 아이들이 대부분이어서인지 수동적이고 암전한 아이가 된 것 같아서 걱정이었는데, 채드워를 다니면서부터 매우 적극적인 아이로 변했다. 아이에게 잠재되어 있는 리더십이 다양한 방면에서 보이는 것 같아서 기쁘다.

5 한 달에 한 번 이상 학년별 학부모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 시스템이 한국 교육과 다르다 보니 한국 교육과 외국 교육의 차이점에 대해 주로 이야기한다. 또 교사와 아이, 그리고 교사와 부모가 서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6 소수의 인원으로 반이 구성되어 있어 선생님들이 아이의 성향과 상태를 잘 파악하고 그에 따라 개인별 학습지도가 가능한 것 같다. 학기말에 선생님이 아이를 평가한 글을 적어보냈는데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정말 잘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는 다른 엄마들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7 많은 한국 엄마들이 국제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한국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쉽고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큰 오해인 것 같다. 과목은 한국 학교보다 적지만 내용은 훨씬 심화되어 있어서 고등학교부터는 수능 준비 이상으로 어렵고 힘이 든다고 알고 있다.

홍수연(델위치 칼리지 서울 3학년 김하린 어머니)

1 영국 유치원을 보내본 경험상 영국 교육이 내 아이와 잘 맞을 것 같다는 판단이 있었고, 델위치 칼리지는 로컬에서 설립된 국제학교가 아니라 영국 본교에서 모든 커리큘럼과 교사진을 지원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영국 본교의 전통에서 비롯된 발전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라 다른 환경이나 교육과정보다는 집에서 너무 멀지 않고 아이들을 조금 더 개별적이고 세심하게 보살필 수 있는 크지 않은 규모의 학교를 찾고 있었다.

3 자신감 있는 태도와 본인의 적성을 찾아주고 싶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교사나 부모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교육이 아니라 본인이 즐길 수 있는 분야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

4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하지만 스스로 지켜야 하는 규율과 통제도 가르치고 있어 자율적인 분위기에서도 아이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켜가며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같다. 그전 학교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다양한 활동으로 흥미와 관심을 갖고 스스로 고민해 보는 시간이 많다는 점이다.

5 처음 개교한 해인지라 부모들이 서포트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만나서 의논하고 고민했지만 크게 부모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없었다.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고민이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만약 그럴 경우 교사와 공유하여 학교와 집에서 각각 어떻게 도움을 주어 해결할 수 있을지 논의하게 된다.

6 교사들의 채용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좋은 교사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사교육이 필요 없도록 학교에서 많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부모보다 먼저 파악하고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점도 만족스럽다.

7 국제학교는 아이들에게 자발적인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편이다. 그래서 본인과 부모가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회와 발전 가능성이 달라지는 것 같다. 균등하게 모든 기회가 제공되어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한국식 교육과 달리 의지에 따라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Question

- 1 (이 학교의) 입학에 결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2 입학하기 전에 어떤 학교를 고려했나.
- 3 부모님의 교육관이 있다면.
- 4 학교에 대한 자녀의 반응은 어땠나. 학교에 다니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 5 학부모 모임에서는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나.
- 6 학교에 대해 만족스러운 점과 불만족스러운 점.
- 7 '국제학교' 알고 보니, 이것이 다르다!

손지희(BIS 캐나다 5학년 박수빈 어머니)

1 일반 초등학교에 보내며 느낀 실망감이 있었다. 나이가 많은 담임선생님이셨는데, 만들기, 놀이 시간 등에 모두 문제집만 풀게 시키는 것을 보고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

2 해외 체류 경험이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공인된 국제학교가 너무 멀어서 비교적 가까운 BIS 캐나다를 고려하게 됐다.

3 아이가 즐거워하고 미래에 자신의 일을 자발적으로 찾고 계획하기를 바라는 마음 외에 특별한 건 없다.

4 스쿨버스를 타고도 교박 1시간은 걸리는 거리라서 멀기도 하고 힘들어하지만 학교는 꼭 가겠다고 한다. 아이 입에서 행복하다는 말과 학교가 재미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 학교를 일주일 다닌 후 아이의 첫 마디는 '선생님이 왜 화를 안 내지'였다. 무엇보다 아이가 짜증이 없어졌고, 자발적으로 숙제와 공부를 한다.

5 일반 학교 학부모와 다를 것이 없다. 공부나 성적, 특별활동, 놀이, 연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얘기하는 편이고, 함께 여행 계획을 짤 만큼 친하게 지낸다.

6 캐나다 주정부의 교사 자격증과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 선생님들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게 만족스럽다.

7 초등학교 때 아이들을 많이 놀게 해주기 때문에 예체능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또 '책 읽기' 시간이 따로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7학년부터는 일반 학교보다 숙제와 봉사가 많아 저서 생각보다 힘든 점이 있다고 들었다. 또 아이나 엄마 모두 소극적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 같다. 아이의 자립심을 길러주고, 능동적인 아이로 만들어주는 초석으로서 큰 만족감을 갖고 있다.